

# 쌀 초과 생산량, 자동시장격리조치 해야

### 협의회 관계자 “수확 후 물량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쌀값 정상화 시킬 수 없어” 도입 필요성 제기

산지쌀값이 또 다시 소폭 하락한 가운데 소비량 대비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시장격리조치가 현재는 부처 협의를 통해 시장격리 여부와 물량, 시점을 결정하다보니 실시여부도 확정적이지 못한다며 격리가 결정되더라도 시점이 늦어지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기준 통계청 산지쌀값 조사치는 80kg 기준 12만6732원으로 지난해 25일 조사치보다 88원 하락하면서 지난해 수확기 평균 12만9807원보다 2.36% 하락했다. 지난해 동기 14만 2900원보다는 11.3%(1만6168원)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초 ‘올해 단경기 쌀 가격이 13만5000원선에서 형성될 것’이었던 전망을 지난 6월

쌀 관측에서 바꿨는데, ‘단경기 쌀값 13만1300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우울한 ‘6월 전망’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수급조절로는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소비량 대비 초과생산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시키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는 최근 김영록 신임 농식품부장관이 취임식에서 내놓은 쌀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김영록 장관은 지난 취임식에서 시장격리와 관련,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 격리하고 이를 위한 정부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겨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확기 이전 사료용비 전환이나 쌀 해외 원조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우선 당면한 문제 해결과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일선으로 쌀값 하락 문제를 꺼내들며 최근 쌀 수매를 둘러싼 논란에 정면돌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017년산 쌀의 수요초과 물량의 시장 격리를 약속하는 한편, 부처 내의 사절정도 빨리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시장격리조치를 바라보는 현장 정서들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대책으로는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산지쌀값을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농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특히 최근 쌀 소비량 감소와 수년간 풍년으로 쌓여 남아돌아 가격이 크게 하락하자 농업계에서는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에 반발하며 밥상을 쌀 수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실상의 쌀 수급조절 역할을 맡고 있는 농협전국RC운영협의회는 최근 정치권에 대해 수확기 대책으로 과잉생산물량의 자동격리제 도입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어느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점, 그리고 이를 통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수확이 다 끝난 11월 중순에서야 물량을 결정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쌀값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면서 초과물량의 자동시장격리 조치의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인재홍 기자



### 생진원, 전북 우수발효식품 특별 프로모션 행사 진행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도내 발효식품기업의 수도권 판로개척과 매출확대를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성남 분당 AK백화점 식품관 특별 행사장에서 ‘전북 우수발효식품 특별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발효식품엑스포의 참여 기업 연중 사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과 함께 하는 ‘진짜 맛’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특별전’을 시행해 가격 할인과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가 마련된다.

판매 제품은 유통채널 전문 MD들과의 협의를 통해 2016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한 전북 식품기업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프로모션에 선정된 업체는 강순옥 식품명인이 직접 제조한 장류와 장아찌 제품을 생산하는 순창의 ‘장본가전통식품’, 대한민국 치즈 1번지 일실의 다양한 치즈와 요구르트 제품 등

합의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지리산 품은 간편식 주어탕을 생산하는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등 총 6개사로 우수한 제품을 기존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북 식품의 매력을 한껏 어필할 예정이다.

생진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발효식품엑스포 행사 이후의 연중 사후 관리 사업의 시작이며,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 식품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양한 유통 판로개척과 더불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알뜰한 구매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식품메카 전북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유통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5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인재홍 기자

# 높은 가격 탓... 한우 선호도 돼지고기보다 낮아

### 한우자조금관리위 “소비 촉진 위해 한우 가격 낮춰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 선호도에서 돼지고기가 46.5%로 가장 높았으며, 한우고기(32.4%), 닭고기(9.0%)가 뒤를 이었다.

2013.2014년 연속 소비자 유통 선호도 1위를 차지했던 한우고기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돼지고기에 밀린 것이다.

‘한우고기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5년 35.4%에서 2016년 32.4%로 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은 43.5%에서 46.5%로 3%포인트 상승했다.

한우고기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맛’ 때문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안전성(24.6%)’, ‘영양(23.1%)’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한우 값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돼지고기로 이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연평균 한우 자육 도매값(1kg 기준)은 2014년 1만4283원, 2015년

1만6284원, 2016년 1만8155원으로 계속해서 상승했다.

이를 증명하듯 한우고기 가격에 대한 소비자 만족지수는 2014년 39.0, 2015년 33.3, 2016년 32.2로 점차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만족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더 만족하고, 100보다 작을수록 더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의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우가격을 낮춰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 유통구조 개선 등 한우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홍 기자

### 전북은행,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리더스포럼 성료

전북은행은 지난 13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센터에서 전북도민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성재환 교수는 ‘상인들이 만든 르네상스 예술이야기’라는 주제로 대중들이 문예부흥의 시대라고 알고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를 정치와 경제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며 그 시대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흥미로운 강연을 펼쳤다.

특히, 성 교수는 인문학과 예술사에 사회학, 심리학, 과학 등의 지식들을 융합해 르네상스 시대를 새롭게 탐구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함을 강조했고,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인재홍 기자

### 캠코, 전북지역 압류재산 총 32건 공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129억원 규모, 총 32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일반음식점과 전

주시 완산구 소재 대지, 부안군 부안읍 소재 여관 등이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20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홍 기자

### 전북도-경진원, 중장년 작은창업 2기 교육 개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14일 4060 세대의 성공창업을 위한 ‘중장년 작은창업 2기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50명이 교육생으로 선발됐으며, 8월 11일까지 총 10시간에 걸쳐 기초·심화 2단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창업절차, 자금 활용방법 등 기초과정부터 창업 아이템 분석, 사업 타당성 진단 등 전문과정까지 망라해 창업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한 교육생별 맞춤형 창업 코칭을 위해 1:1 멘토링을 실시하고, 전담 담당자를 도입해 교육생과의 밀착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창업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료 후에도 전문가

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준비된 예비창업자를 양성한 후, 수료생의 안정적인 창업시장 진입을 위해 수료생전원에게 창업자금 특별보증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연계 운영하고 있다.

교육사업 담당자는 “비자발적인 무조건 창업으로 인한 폐업 방지와 준비된 창업자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작은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지원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은창업 지원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www.jjnh.co.kr

##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미나리

장미

호박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 오태식  
상임이사 (경제) 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국,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원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농업공동조합